

2023. 11. 13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1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매

교통정책과장	이창석	2133-2210
교통기획팀장	유형석	2133-2212
담 당 자	백은주	2133-2219

서울시, 11.16. 수능일 수험생들을 위해 전방위적 교통지원

- 시험 당일 수험생 입실시간 고려 지하철 31회 증회, 버스 배차간격 최소화
- 무료비상수송차량 운영...시험장 인근 지하철역, 버스정류소 등에 698대 대기
- 시험 당일 장애 수험생에게 ‘장애인콜택시’ 우선 배차, 사전예약 접수 중
- 시험장 인근 교통질서 유지, 지하철·버스 소음 유발행위 금지...정숙한 분위기 조성
- 시, “교통지원 아끼지 않을 것...대중교통 이용, 교통질서 유지 등 시민 협조 당부”

- 서울시는 11월 16일(목) 「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」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당일 지하철 증회 운행, 비상수송차량 무료 지원, 시험장 주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
- 서울에서는 230개 시험장에서 107,423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며, 이날 수험생들은 지정된 시험장에 06시 30분부터 08시 10분 사이 입실이 가능하다.

< 시험당일 지하철 증회 운행, 시내버스 집중 배차 등 수험생 이동 지원 >

- 서울시는 우선 서울 지하철의 오전 집중 배차시간을 연장하여, 연장 시간대에 총 31회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. 이날은 승객 증가, 열차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예비차량도 총 16편 대기시켜 놓을 예정이다.

○ 오전 집중배차시간 : (평소) 07~09시 ➡ (수능일) 1~8호선 06~10시,
우이신설·신림 06~09시

구 분	계	1호선	2호선	3호선	4호선	5호선	6호선	7호선	8호선	9호선	우이신설	신림
평소 대비 증회 횟수(회)	31	-	5	3	3	4	2	4	2	-	4	4
비상대기열차(편성)	16	1	2	2	1	3	1	2	1	1	1	1

※ 1호선은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편성 예정

※ 9호선은 회차문제로 추가 증회운행은 미 실시하고, 이례상황 발생 대비하여 비상대기열차만 운용

- 시내·마을버스 역시 수험생 입실시간을 고려하여 06시부터 08시 10분까지 운전원들의 휴게시간을 최소화하고 최소 배차간격을 유지하여 운행한다.

○ 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평소와 동일한 운행횟수 내에서 집중 배차하는 것으로 출·퇴근시간대가 아닌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.

- 이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하철역, 열차 및 버스 내부에서 시험장행 노선과 위치를 안내하고, 등교 시간 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.

○ 시험장에 인접한 지하철 역사에는 시험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으로 시험장 방향 출구 및 응원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며, 역무 직원들도 등교시간대 개찰구 앞·대기실 등에서 수험생들을 안내한다.

○ 시험장 경유 버스는 전면 유리창에 시험장행 안내 표지를 부착하고, 시험장 인근 정류소에 하차 시 운전원이 육성으로 안내한다.

□ 이와 함께 ‘수험생수송지원차량’ 안내문을 부착한 민·관용 차량 698대도 시험장 인근의 지하철역, 버스정류소, 주요 지점 등에 대기할 예정이며, 수험생이 승차를 요청하면 시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준다.



□ 또한, 시는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 수험생이 시험장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능 당일 장애인 콜택시를 수험생에게 우선 배차하기로 했다.

○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학교까지 이동을 원하는 수험생은 11월 7일부터 장애인콜택시 고객센터(1588-4388, 유선 02-2024-4200)를 통해 사전 예약받고 있으며,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 당일 수험생의 요청이 있으면 우선 배차할 계획이다.

○ 또한 이들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도 집으로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귀가 예약도 함께 받는다.

< 시험장 인근 교통질서 유지, 지하철·버스 소음 유발행위 금지·정숙한 분위기 조성 >

□ 한편, 서울시는 등교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인해 수험생이 제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, 자치구, 관공서 등의 시험 당일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한다.

- 등교시간대에는 자치구 공무원, 민간단체 봉사자 등 2천4백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경찰과 함께 시험장 주변이나 교통이동 주요지점에 배치되어 비상수송차량 탑승, 교통질서 유지 등 수험생의 신속한 이동과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.
- 뿐만 아니라 수험생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장 인근 지하철 시설물 검사 및 공사들은 일시 중지할 계획이며, 버스·택시는 운행 중 경적, 급출발, 급제동 등 소음 유발행위를 자제토록 각 운송조합에 사전 요청하였다.
- 수능 시험 당일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서는 시험장 반경 2km 이내 학교 및 지하철역 주변으로 주정차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, 자치구에서는 시험장 200m 전방 도로에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은 진·출입을 통제하고 주차를 금지하는 등 강력 지도할 계획이다.
-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10만여명의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 교통 편의를 지원하겠다”며 “수험생 가족 및 지인분들 모두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용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 일반 시민들도 출근시간 조정,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.”고 말했다.